'말리나'가 말레시아 에서 오푸스데이의 가 족적 분위기를 키우는 누메라리아 아욱실리 아르입니다.

"친구들이 성찬례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제가 성찬례를 받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 니다." '말리나'가 말레시아에서 오푸스데이의 가족적 분위기를 키우는 누메라리아 아욱실리아르입니다.

"친구들이 성찬례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 제가 성찬례를 받기 위한 여정 의 시작이었습니다."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malrinaga-malresiaeseo-opuseudeiyigajogjeog-hwangyeongeul-kiuneunnumeraria-augsilriareuibnida/(2025-12-13)